

언론 민주화의 위기와 송건호의 언론사상

김수정* · 이진로**

2008년 이후 정부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과 정부 비판 보도의 제한, 시사 프로그램의 폐지 압력, 그리고 재벌과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을 허용한 언론법 개정 등은 언론 민주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언론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언론인의 정신과 실천을 되돌아보고 숙고해서 한국 저널리즘의 미래상을 재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송건호는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에 정면으로 맞서 보도통제를 반대하고, 국민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계속한 점에서 오늘날의 언론인이 언론 민주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언론사상을 제시해 준다.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연구 및 관련 언론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송건호의 언론사상은 민족언론, 민주언론, 독립언론 등으로 요약됐다. 첫째, 민족언론은 분단된 남북관계와 주변 강대국의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언론이 민족의 자긍심을 세우고 통일의 책무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민주언론은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이자 유지, 발전 양식이라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셋째, 독립언론은 언론이 기업의 형태로 존재, 운영되는 과정에서 내외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때 언론의 책무가 구현됨을 강조한다. 송건호의 언론사상은 언론 민주화의 위기를 회복하기 위한 철학과 방법론 모색의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언론학적 의미가 매우 크다.

주제어: 송건호, 언론사상, 민족언론, 민주언론, 독립언론

1. 머리말

우리나라 언론이 정치권력의 통제와 간섭을 받던 시대는 벗어났는가? 2012년에 들어 MBC와 KBS를 비롯해 다수의 방송사가 뉴스 공정성 회복을 위한 방송사 노조 파업을 전개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 자유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부분적 언론 자유 향유 국가’에 포함됐다.¹⁾ 언론계와 시민들은 언론의 민주화가 정권의 언론에 대한 태도와 의지에 따라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동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의 방식, 재벌과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을 허용한 언론법 개정, 정부 비판적 보도에 대한 보도 제한과 시사 프로그램의 연이은 폐지 압력 등의 사례를 보면 언론 민주화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국사회 언론은 수많은 민주화 위기를 경험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언론인의 정신과 실천을 되돌아보고 숙고해서 한국 저널리즘의

* 한겨레 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원(su808@naver.com)

** 영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leejr@ysu.ac.kr)

1) 미국 갤럽조사연구소가 2011년 2~12월 나라마다 15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조사를 통해 그 나라의 ‘언론 자유지수’를 조사·집계한 결과 세계 133개국 중에서 한국의 언론자유 응답률은 세계 87위로 ‘부분적으로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로 분류됐다. 신뢰도는 95%에 최대 오차 $\pm 2.2 \sim \pm 5.1\%$ 포인트다. 핀란드가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핀란드 국민 가운데 ‘언론자유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언론자유 향유 국가에는 네덜란드·호주·가나·독일·스웨덴·캐나다·영국 등의 순이었고, 미국의 경우 ‘언론자유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12%로 세계 16위에 해당했다. 아시아에서는 타이완(17위)에 이어 홍콩(19위)·일본(64위)·한국(87위)·중국(89위)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김규환, 2012).

미래상을 재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1988년 국민주 모금으로 창간된 『한겨레』 신문은 한국사회 언론 민주화 운동의 산물 가운데 하나다. 세계 언론사에서도 유래가 없는 2만7천여 명의 소액주주가 탄생시킨 『한겨레』의 창간 배경에는 초대 대표이사를 지낸 청암(靑巖) 송건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한겨레, 2008). 송건호는 1970~80년대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인으로서의 신념을 지키고자 애썼던 민주언론운동의 증인이었고, 대안언론 창간을 위한 참언론인의 상징이었다. 송건호는 22년간의 언론인 생활과 현대사와 언론에 관한 방대한 집필 활동을 통해 언론계의 양심으로 존경을 받았다. 언론탄압이 극심하던 시절 언론인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언론탄압 속에서 모진 고문과 시련을 겪기도 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얻은 파킨슨 증후군으로 그는 오랫동안 투병하다 2001년 12월 21일 타계했다. 장례는 『한겨레』 주관 사회장으로 치렀다.

송건호의 언론사상은 후세 언론인에게 언론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공정보도가 제약된 언론 현실에서 언론인이 가져야 할 사명과 책임 그리고 역할을 제시한다. 송건호는 언론 자유가 억압됐던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유신 정권과 1980년대 전두환 정부시절 동아일보의 언론인, 해직 언론인, 재야 언론인, 시민단체 언론활동가 등으로 활동했다. 송건호는 민주화 이전 시기 언론인이 겪었던 고난의 현명한 가운데 서 있었다.

이 논문은 송건호의 방대한 저술과 송건호에 대한 연구문헌, 그리고 송건호와 함께 언론민주화운동을 함께 했던 언론인들의 회고를 통해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송건호와 같은 시기 언론 상황을 경험한 언론인들의 회고는 당시 언론 민주화 과정의 시련과 기억을 통해 시대적 고민을 안은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개인의 차원을 넘어 한국사회 언론 민주화를 겪은 주역들의 언론사상으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미 문헌화된 자료와 관련 언론인들이 회고를 통해 한국 사회 언론 민주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이러한 기록은 관련 언론인들이 연로한 까닭에 앞으로 기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필요한 작업이다.

2장에서는 송건호가 누구이며, 현재에서 왜 송건호의 언론사상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밝혔다. 4장에서는 관련 언론인들의 구술 회고와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언론 민주화 가운데 송건호의 언론사상이 구체화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송건호 언론사상의 핵심내용을 민족언론, 민주언론, 독립언론 등 3가지로 유형화하여 현재적 의미를 논의하고,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의의 그리고 연구의 한계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2. 송건호의 언론사상에 주목하는 이유

1) 언론인 송건호의 일생

송건호는 1926년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태어났다. 중농의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한성사립상업학교(현재 서울 한성고)를 거쳐, 1946년 경성법학전문학교, 그 후 194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송건호는 한국전쟁 이후 복학을 했고, 법과대학에 재학중이던 1953년에 『대한통신사』 기자 공채에 응모하여 외신부 기자로 첫 언론인 생활을

시작했다. 그후 1954년 새로 생긴 『조선일보』 외신부로 옮겼고, 이때부터 평론을 쓰면서 신진평론가로 이름을 알렸다. 송건호는 입학후 8년이 지난 1956년이 되어서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58년 『한국일보』 외신부 차장을 거쳐 『자유신문』, 『세계일보』에 있다가 1960년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됐다. 송건호는 1961년 『민국일보』 논설위원으로도 잠깐 재직하다가 다시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돌아간 이후 1963년 『경향신문』 논설위원으로 옮겨 1965년 편집국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1966년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도 있었다. 송건호는 1969년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옮긴 이후 통일문제연구소장, 수석논설위원,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송건호의 현직 언론인 생활은 불과 22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동아일보』 편집국장직을 사임한 이후 송건호는 언론자유수호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송건호를 언론계의 양심이자 한국 언론의 사표로 불리게 만든 사건은 1975년을 기점으로 한다. 당시 당대 최대발행부수를 자랑하던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이었던 송건호는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한 후배 기자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강제 해직시킬 수 없다고 경영진에게 바른 해결을 촉구하다 자진 사임했다. 자신의 안위보다 자유언론을 외치는 젊은 기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결단과 행동은 언론인에게는 물론 이를 지켜본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과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송건호가 신문사를 그만둔 이후 대학 강의 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여러 방법으로 취업을 방해하거나 근무가 지속되기 어렵도록 간섭했다. 그후 송건호는 오랜 기간 생활고와 정신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송건호에 대한 정권의 고위 공직 회유도 있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히려 그는 현대사 및 언론관련 저술 작업에 매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야운동가, 언론민주화운동가로서의 길을 나서면서 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재 민주언론시민연합) 초대 의장, 『말』 지 창간, 『한겨레』 창간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언론 민주화의 상징으로 후배 기자들과 시민들의 존경을 받았다.

한국언론학회는 창립 50돌(2010년)을 맞아 미디어 발전 공헌상 수상자로 신문부문에 송건호·선우휘·김영희·장명수씨 등 4명을 포함했다. 송건호 전 『한겨레』 사장은 언론자유와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면서 훼손하지 않고 꿋꿋이 언론인의 양심을 지켜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언론학자들이 송건호를 한국의 대표적 언론인으로 뽑은 배경이다.

송건호는 평소 언론인은 소명의식을 갖고 책무를 다해야 할 것과 언론인의 지위를 징검다리 삼아 이익과 출세를 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평생 이 말을 지켰다. 그의 언론관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언론인의 경험을 토대로 완성되고 성숙되었다. 또한 송건호가 남긴 방대한 저술 속에서 그의 언론사상이 집대성되어 설명되고 있다.

2) 언론 민주화에 앞장선 송건호

송건호가 언론인으로 재직할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은 그가 내근직을 주로 했고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은 탓에 기자로서의 호기나 다양한 에피소드를 남긴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한다.²⁾ 젊은 나이임

2) 조선일보 외신부 기자로 근무를 같이 했던 김자동의 기억 속에 송건호는 영어로 쓰인 진보 서적을 중고서점에서 찾아 구입해 읽는 것 외에 특이할 것 없이, 자신의 일에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조용한 성격의 동료였다(김자동, 2012. 3. 30 녹취). 남재희(2010)는 송건호에 대해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아 에피소드가 없고, 그가 부득이

에도 불구하고 논설위원이 되면서 더욱 현장 기자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다만 암흑했던 시대적 현실을 고려하면 현대사에 대한 관점이나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꽤 직설적인 논설을 거침없이 썼다. 기자 후배들에게 송건호는 정치적 간섭이나 압박을 받아 침묵하거나 곡필하지 않는 고집을 가진 선배 기자로 기억됐다.³⁾ 송건호를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기자 후배들과 동료들이 추천했던 것도 이 같은 성품 때문이다.⁴⁾

송건호는 “시대의 의인”이라는 표현에 적합한 품성과 활동을 보여주었다. 개인적인 품성을 보면 투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조용한 성격이었다. 그는 온순하고 순박한 선비의 품성을 가졌지만 시대의 요구에 의해 “해직기자의 대부”라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20년간 정권의 언론탄압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그는 언론인과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현상적 비판만이 아닌 학문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지식인으로서의 참여를 강조했다.⁵⁾ 언론계와 일반 시민은 글로 쓴 것은 행동으로 실천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존경했다. 특히 1988년 『한겨레』가 정권과 자본의 소유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에 동감하는 다수의 시민을 주주로 하여 설립되는 과정에서 그는 창간발기위원장과 대표이사로 언론 자유의 꿈을 실현시켰다. 『한겨레』 창간을 위한 국민주 모금 지방 강연장에는 송건호라는 이름에 기대를 품고 참석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만큼 송건호는 새 신문 창간에서 신뢰와 기대를 품게 한 상징적인 인물로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한겨레』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송건호는 편집권의 독립에 대해 강조하고 남북한 문제에 대한 냉전적인 틀을 벗어나게 하는데 기여했다.

조맹기(2006)는 송건호가 말한 직필은 신문 지식인의 처신으로 사회의 움직임, 변화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때에 더욱 명료해 질 수 있는 의미라고 강조한다. 박용규(2012)도 송건호가 기자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하고, 언론인의 탈기능인화를 강조한 점에서 오늘날 언론의 올바른 역할과 언론인의 바람직한 자세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지적한다. 특히 송건호의 언론사상은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변화 속에서 독자와 사회를 위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고민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이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언론의 민주화 회복을 위해서는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의 언론에 대한 압력에 저항하고 대표적인 언론인상을 실천으로 보여준 언론인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술자리에 합류할 땐 주스나 우유로 대신하곤 했다고 기록했다.

- 3) 김태진은 인터뷰를 통해 1963년 『동아일보』 입사 전 한 잡지사에서 근무할 때 『경향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있던 송건호를 자주 만났다. 송건호가 사실을 통해 민족의 역사에 관한 글을 자주 썼으므로 김태진이 잡지의 원고를 청탁하거나 또는 주제를 의논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말했다(김태진, 2012. 4. 13 녹취).
- 4) 성유보는 송건호가 편집국장이 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계속된 정치 권력의 탄압과 언론의 타락을 계속 지켜볼 수 없었던 일선 기자들이 사건 기사의 누락과 재발 방지를 위한 ‘언론자유 수호선언’을 1차(1971년), 2차(1973년), 3차(1973년)에 걸쳐 하고 있을 무렵, 『동아일보』 기자들의 경우 결집된 힘이 필요함을 느껴 내부에서 언론노조를 만들어 집단행동을 계속했다. 그러던 1974년 정권의 눈치를 보던 『동아일보』 경영진은 결국 경찰이나 보안사의 간섭을 조금이나마 무마시키기 위해 언론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젊은 기자들을 불러 새 편집국장으로 누가 되면 좋겠냐는 의견을 물었는데 이때 많은 기자들이 송건호 수석논설위원을 추천했다.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 송건호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성격이 아닌데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깨끗한 성격을 가진 선배로 인식됐다. 송건호의 편집국장 선임 배경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다른 논문이나 글에서 발견되지 않는다(성유보, 2012. 3. 24 녹취).
- 5) 『한국민주주의의 탐구』에서 송건호는 신문인은 올바른 방향적 감각, 즉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를 객관화시켜 비판할 수 있는 사회적, 과학적, 사상적 안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집 7권에 수록.

3. 연구방법 및 녹취 대상 언론인

개인의 언론사상이란 사전적 의미로 접근해 보면, 언론에 대해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정합성을 이룬 사고, 의식의 내용으로 가지는 견해 혹은 관점이자 태도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어떤 현실의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일관된 자세로 실천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일련의 사고의 틀이라고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언론사상을 완성하기까지 경험했을 주변 상황 속에서의 개인과 자신의 언론관을 내비치거나 정리하여 작성한 문헌, 관계했던 조직이나 주변 인물들을 통한 탐문과 탐색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⁶⁾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언론학 연구에서 한국 언론인의 언론사상 연구는 역사의식의 재구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바람직한 언론사상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 될 연구분야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후세 언론인들에게 언론인이 가져야 할 사명으로써 민족의식을 강조하고, 독립언론의 필요성을 몸소 실천한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송건호의 저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문헌연구와 주변 인물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함께하는 식으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송건호의 언론사상에 대한 접근은 언론의 사명이자 역할에 비추어볼 때 언론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모색에 중점을 둘 것이다. 문헌자료 및 관련 언론인들의 증언을 통해 송건호의 사상적 궤적을 따라 검증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해가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송건호와 같은 시기 언론활동을 전개했던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구술사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술사는 한 사람 혹은 여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억을 모아 특정 사건이나 그 사건의 원인, 영향 등을 논의하는 접근 방법이다(Creswell, 1998/2005). 송건호라는 단일한 개인과 나눈 대화나 이야기, 사진, 생활경험 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1시간에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특정 사건이나 그 사건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의 해석이나 의견과 함께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연관시켜 살펴볼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를 대화를 통해 진행했다. 자료의 수집은 음성 녹음을 주로 활용했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개인의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밝힌 부분이나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헌자료를 통해 사실을 재확인하여 인용하였다.

이 글에 도움을 준 녹취 대상 언론인은 김언호, 김자동, 김태진, 성유보, 신흥범, 임재경, 정연주 등이다.⁷⁾ 이들 언론인들은 한국사회 언론 민주화의 길을 함께 걸었던 주요 인물들이며,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살펴보는데 주요 사건이 무엇인지, 송건호의 언론관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언을 주었다. 녹취 대상 언론인의 간단 약력은 <표 1>과 같다.

6) 조맹기(2006)는 언론인물사상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법고창신(法鼓創新)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지혜가 필요하다 강조했고 언론이 사회책임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에 과거 언론인들이 가졌던 사고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구(1995)는 옛 사상가들의 사상 속에 현대성이 얼마나 간직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에서 사상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언론인의 언론사상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한국 언론인 개인의 언론사상에 대한 재구성은 서구화의 맹종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에게 역사의식을 되살리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조맹기, 2006; 김용구, 1995).

7)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들의 녹취는 현업 당시 언론현실에 대한 기억과 송건호의 언론사상에서 주목해야 할 역사적 사건들의 회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청암언론문화재단(www.songkunho.or.kr)은 송건호와 관련된 자료 수집과 녹취 대상 인물의 선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표 1> 녹취 대상 언론인

1	김언호	한길사 출판사 대표, 전 동아일보·신동아 기자	2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전 조선일보 외신부 기자
3	김태진	다섯수레 출판사 대표, 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초대 이사장	4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 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5	신홍범	두레 출판사 대표, 전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	6	임재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7	정연주	전 KBS 사장, 전 한겨레 논설주간			

4. 한국사회 언론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인 송건호의 활동

1) 역사의식과 통일의 강조

송건호는 1961년부터 신문사에서 논설위원으로 재직했고,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서는 편집국장을 맡았다. 그는 주로 칼럼과 사설 작성 그리고 취재를 지휘하는 부장과 편집국장으로 활동했다.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끊임없이 글을 쓰고 외국의 문헌을 번역해서 ‘언론활동’을 꾸준히 했다.

김언호⁸⁾는 “역사가로서의 언론인, 언론인으로서의 역사가의 길을 통합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송건호의 언론관이 한국 저널리즘이 가장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김언호, 2012. 3. 15 녹취). 스무 권의 『송건호 전집』(2002)은 집회 연설도, 데모도, 책을 쓰는 것도 ‘언론활동’이라고 생각한 지식인 송건호가 전개한 언론 행위의 산물이다. 김언호는 송건호를 두고 “80년대 저술가로서의 언론행위를 꾸준히 했고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주제에 대해, 그 시대의 독자들과 대화하는 언론인”이라고 평가했다(김언호, 2012. 3. 15 녹취). 과거 한길사에서 주최한 역사 강좌에서도 송건호는 분단된 조국에서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외국의 것을 다 단절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한국인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문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다고 김언호는 회고했다.

그런 점에서 송건호는 진정한 언론은 민족 통일의 가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사상을 강조했다. 분단 상태에서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송건호는 남북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만큼 우선했다(전집 1, ‘통일문제는 외면할 수 없다’, 181쪽). 민주와 통일 문제에 있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느냐는 무의미한 시비일 뿐이다. 송건호는 자주적 민족통일을 위해서 언론이 참된 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민중의 자각을 발동시켜야 한다고 확신했다.

역사학자 서중석은 송건호의 사망을 추모한 글에서 역사인식이 남다른 언론인으로 그가 많은

8) 김언호는 송건호가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그만둔 이후 출판작업을 위해 자주 만남을 가졌다. 1977년 김언호는 한길사에서 ‘사상신서’를 기획하고 제1권으로 송건호 평론집 『한국민족주의 탐구』를 출판했다. 이 책은 한국 민족의 자각 즉 주체적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을 저술한 진보적 민족주의자라고 회고했다.

“선생은 식민 상태에서 벗어난 국가가 진정 자주의식에 불타 있다면 다른 신생국에서처럼 현대사연구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새 사회 건설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은 그만한 정치적, 사회적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식민주의 잔재가 왜 그토록 오래 존속하였고 민족주의가 왜곡되었는가, 그런 것들과 싸우는 길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데 학문적 정열을 바쳤다.

선생의 현대사를 꿰뚫어 보는 혜안은 이미 1960년대에 마련되어 있었다. 선생은 이 시기에 특히 지식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어찌서 이 땅의 사회과학은 철두철미 주체성을 망각하고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며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천시하는가가 최대의 고민이었다. 선생은 현대사를 냉전에 편승하여 활로를 찾으려 하는 ‘이승만 노선’과 냉전논리를 거부하고 민족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만들어가려는 ‘김구 노선’의 대결로 규정하면서, 60년대에 간절히 백범의 부활을 기대해 마지않았다. (중략)

선생은 자신을 진보적 민족주의자로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민족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버리는 용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선생의 삶과 역사정신은 그와 같은 민족주의의 구현에 있었다.

선생은 가끔 글을 쓰면서 울었다고 고백한다. 무엇보다도 친일파들이 해방후 단죄를 받기는커녕 경제·정치·문화·교육계 등 모든 분야에서 새 나라의 지도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울분을 금할 수 없었다.”(서중석, 2001)

역사학자 강만길(2001)도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고, 송건호를 언론인이자 역사가로서 현대사 연구에 크게 기여했고, 투철한 역사의식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대성하고, 시대의 의인으로 추앙 받는다고 말한다. 김태진은 송건호가 신문 사설에서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다뤘던 것이 당시 다른 언론인들과의 차이였다고 회고했다(김태진, 2012. 4. 13 녹취).

송건호는 『한국현대사론』에서 구한말 개화기 청년운동부터 일제강점기와 8·15해방 전후 시기를 다루는데, 이 책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체계적인 통사로 묶어낸 최초의 연구서로 평가를 받았다.⁹⁾ 송건호는 자신을 ‘진보적 민족주의’로 분류하고 우리 사회의 불화의 원인은 분단 문제에 있다고 보면서 “민족의 살 길은 통일에 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전집 1, 181쪽). 그는 식민치하의 중학시절부터 6·25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민족’ 정신은 자신의 삶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송건호는 『한국민족주의의 이해』에서 “민족주의란 결코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보다 더 역사적·실천적 개념이라는 사실”이며 제2차 대전후 세계의 각 식민지에서 새로 탄생한 독립국에서 민중이 적극 참여하는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짚어냈다(전집 1, 191~202쪽). 한국은 제3세계 신생국과 같아서 독립은 되었어도 구식민주의 잔재세력이 남아 애국의 탈을 쓰고 자신의 연명을 위해 재산과 지식으로 민첩하게 처신 혹은 외세와 결탁해 새 나라의 자주적 의욕을 허물어뜨리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3세계형 민족주의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민중을 주체로 한 사회운동

9) 송건호는 일제 말기 시대 가혹한 탄압과 미래에 대한 절망 속에서 양심을 지킨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일제 말기의 암흑시대조차 얼마나 괴로운 시대가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일제 말기를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하찮은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일제 때 양심을 지켰던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겠는가를 느껴요 (중략) 그 다음에 혼동기였던 해방 직후에서 6·25 때까지의 3, 4년간을 많이 연구했지요. 해방 후 4, 50년의 운명을 결정할 이 3년간의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였죠.”(전집 20, 294~295쪽)

의 형식을 가지므로 사회과학적 현실분석과 인식을 바탕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될 조건이 생긴다고 논리를 폈다(전집 1, 193~194쪽). 이러한 분석과 견해는 민족운동의 방향이 사회현실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사회과학적 현실분석에서 논의를 출발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송건호는 당연히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민족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송건호의 민족에 대한 의식은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1970년 아시아문제연구소 주최 ‘한국통일문제 국제 학술대회’에서 ‘한국정부의 통일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경향신문, 1970. 8. 14), 1971년 『동아일보』 논설위원 시절에는 신문의 역할과 관련해 신문은 국민의 의식을 통일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식민주의 시대의 수치스런 의식 잔재를 불식하고 민족문화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동아일보, 1971. 5. 19). 1971년 송건호는 『동아일보』 내 통일문제연구소장을 지내면서 통일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혔다. 송건호에게 통일은 한민족이라는 역사적 전통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였다. 이와 함께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로 민주정치체제를 위해 언론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중의 여론이고,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언론이므로 언론자유가 권력의 민주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전집 1, 208쪽).

송건호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환영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남북의 새로운 관계 개선은 어느 특정층의 독점이 아니고 자의에 맡길 수도 없다. 국민의 여론은 광범히 그리고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하고 여기에 언론의 기능이 더욱 커져야 한다. 남북관계나 공동성명에 관해서 또 앞으로의 국내체제에 대한 언론의 공정한 보도와 솔직한 비판은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활동이 존중되지 않고서 민주체제를 과시할 수는 없다. 더욱 민주주의 본래의 체제로 우리의 태세를 굳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송건호, 1972, 59쪽)

요컨대 송건호에게 언론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수행하는 역할은 민주주의와 분리되지 않았다. 즉, 송건호는 언론이 권력의 부당한 탄압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평화적 통일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된다고 보았다.

2) 사회와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권력에 저항

송건호는 불의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는 깨끗한 성품과 기개를 지녔다고 인터뷰 녹취 참여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¹⁰⁾ 성유보는 “송건호는 본인 스스로 이래야 한다고 앞장 서 주장하는 투쟁가는 아니었으나, 누구나 볼 때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고,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의 자리여도 본인이 있어야 하는 자리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고 말했다(성유보, 2012. 3. 24 녹취). 『동아일보』

10) 신홍범은 회의를 할 때에도 가급적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분으로 송건호를 떠올렸고, 정연주는 송건호를 천성적으로도 지식인이고 선비여서 혁명가나 운동가처럼 조직적으로 사고하는 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정연주, 2012. 4. 9 녹취). 신홍범은 송건호를 두고 “복잡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해관계를 따지기 전에 옳은 일이나, 참여를 해야 하는 일이나를 가지고 판단을 하신 분이였다”고 말했다(신홍범, 2012. 4. 6 녹취).

편집국장을 맡을 당시에도 그랬고,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대표를 부탁할 때도 송건호는 직장보다는 직업과 역할을 선택하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불의를 외면함으로써 인해 불이익을 감수할지라도 망설임이 없었다(성유보, 2012. 3. 24 녹취).¹¹⁾

“내가 한 직장인이라는 점을 중시한다면 그들의 비난과 그 말이 모두 옳다. 그러나 언론이라는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직책의 특수성을 비추어 ‘직장에 충실할 것이냐?’ ‘직업에 충실할 것이냐?’를 택해야 한다면 나는 단연 직업에 충실하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비극일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개인의 의리보다도 본분에 충실해야겠다는 결심이 강해 일부에서 퍼붓는 비난을 무릅쓰고 오늘과 같은 어려운 길을 택하게 되었다.”(전집 9, 203쪽)

송건호는 신문사를 떠난 이후 자신을 향한 비난과 욕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지만 그대로 적당히 사주에게 협조하고 기자들을 해임시키고 사는 것보다는 천번만번 옳고 잘한 일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돌아봤다.

1974년 10월 23일 『동아일보』에 서울대 농대생 시위 관련 기사를 실은 송건호 편집국장은 당국의 보도 금지 압력을 거부하고 시위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다음날 출근 후 바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다. 이 사건은 제3차 ‘자유언론실천선언’이 동아일보분회의 공식 결의로 채택되는 데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

“편집부에 있던 당시인데 아침에 출근하면 중앙정보부든 경찰이 편집국장실에서 30분을 앉아 있었다. (그들의 역할은) 편집국장에게 이 기사는 빠라, 이것은 1단으로 줄여라하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10·24 선언은 실천적인 내용을 담았었다. 그중 하나가 중앙정보부 기관원의 출입을 금지한다라고, 우리는 『동아일보』 사옥 문 앞에 기관원 출입금지 푼말을 붙였다. 긴급조치 조항을 보면 알겠지만 유신반대라든지 개헌청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테모에 대해) 언론이 보도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했다. 10.24 선언 이후 『동아일보』는 사고 1단이라도 테모관련 기사를 내보낼 수 있게 됐다.”(성유보, 2012. 3. 24 녹취)

보도 통제에 놓인 언론은 편파보도에 치우칠 뿐 아니라 정치·경제 현안을 등한시하게 된다. 송건호는 이것이 젊은이들의 이른바 의식화를 막는 구실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고 국민의 정확한 현실과약을 오도시킨다고 경고했다(전집 8, 233~234쪽).

언론을 장악하려는 권력과 권력에 굴종하는 언론사주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건호는 정권에 대한 언론의 굴종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초래한 요인이 된다고 믿었다(전집 8, 62쪽) 사회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정권유지를 위한 독재성향이 점점 노골화 될수록 ‘위장된 조종’보다 ‘노골적인 탄압책’이 나오기 마련인데, 1961년 박정희 정권은 ‘언론정화’ 구실로 언론인을 체포하거나 재판에 회부했고, 당시 등록된 언론기관의 90%에 달하는 신문과 잡지를 강제 폐간했다(전집 8, 55쪽). 폐간을 면한 언론사들에게 경제적 특혜를 제공해 언론사주들의 부를 부풀리는 계기를 제공했다.

11) “송건호 선생님은 참으로 한 평생을 한결같이 크게 어질고 크게 의롭게 살려고 하신 분이요. 1975년 동아일보 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들이었던 우리 동아투위 위원들이 동아일보사에서 강제로 쫓겨났을 때, 선생님께서는 ‘언론자유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회사에 더 이상 머물 수는 없다’면서 편집국장직을 미련없이 던져 버렸고 그 이후 선생님은 우리 해직 언론인들의 정신적 대부가 됐다.”(성유보, 2001)

송건호는 『민주언론 민족언론 1·2』¹²⁾에서 1960년대 언론산업의 놀라운 고도성장은 일종의 ‘사이비 근대화’라고 이름 붙였다. 언론기업들의 시설과 건물이 근대화되고, 언론재벌들의 언론기업화가 외양적으로는 근대화를 이룬 것처럼 보였으나, 언론기업으로서의 독립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언론으로서의 독립과 자유를 잃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언론이 이같이 자유와 독립성을 잃게 된 것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권력당국의 억압과 규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또 언론기업이 권력당국과 유착하여 언론기업 스스로가 언론의 자유를 적대시키는 기현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전집 8, 62쪽)

또한 송건호가 가장 우려했던 것 중의 하나는 탈사상적 기능인으로서 언론인에 대한 문제였다. 언론계의 위기는 단순히 외부만이 아닌 고도의 구조적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깊숙이 내재하게 되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았다. 언론이 외양적으로는 제법 근대화된 듯이 보이나 진실을 대하려는 기자의 지성에는 “역사를 전진하는 것으로 보는 눈-사상” 즉 정치학적으로는 민주주의이자 철학적으로는 휴머니즘을 가지고 뉴스를 대하는 점이 부족하다는 진단이다(전집 8, 79~80쪽). 객관보도에 치우친 나머지 이념과 민족을 뒤로한 채 뉴스의 객관성을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정치적·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실들을 사건의 참된 진실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보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조선일보』) 신문사에 입사할 당시만 해도 언론 자유가 그렇게 위축된 상태는 아니었다. 리영희 부장과 65년 외신부 근무 때에도 베트남 전쟁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언론 자유는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점차 기관원들의 출입이 잦아지더니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외신부에서 야근을 할 때면 ‘여기 남산입니다’라고 전화가 걸려와 무슨 기사에 대해서는 홀드(Hold)하세요 했다. 그 말은 해당 기사를 빼라는 의미이다. 기자들은 적어도 우리 손으로 그 짓은 못한다고 해서 보도 가치가 있는 기사를 우리말로 옮겨 일단 편집부로 보냈다. 편집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었다. (기관원들이) 기사를 넣고 빼라고 지시하고 (지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기자들을 연행해 가기도 했다. 유신체제 이후 신문사의 분위기는 가위 놀리듯 숨이 막혔고 기자로서 양심의 괴로움을 느껴야 했다.”(신홍범, 2012. 4. 6 녹취, 이하 괄호 내용은 필자 표기)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언론이 물리적 힘에 굴복은 할지언정 자발적으로 권력에 협조하는 일은 드물었으나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이후 기관원 출입이 잦아지면서 직접적 간섭이 심화되고 언론사 내부에서는 알아서 협조하는 분위기가 됐다. 신홍범은 『조선일보』 외신부의 야근일지가 남아 있다면 홀드라는 표시를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신홍범, 2012. 4. 6 녹취).

송건호는 1966년 『경향신문』 경매 처분 당시 편집국장으로 재직할 바 있다. 『경향신문』은 흑자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와 제작관여, 사장의 구속 등으로 결국 경영진은 소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1967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력이 개입한 언론 탄압행위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를 두고 비판 보도하지 못한 언론계였다. 이에 대해 송건호는 “결코 남의 일로 보일 문제가 아닌데 이를 방관하고

12) 전집 8, 9에 수록

말았다는 것은 언론사에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탄했다(송건호, 2012, 274쪽). 또한 1968년 ‘신동아 사건’으로 언론 자유의 마지막 보루였던 『동아일보』마저 굴복했다고 안타까워했다(송건호, 2012, 279쪽). ‘권·언복합체’라는 새로운 현상이 만연해질 즈음 당시 유일하게 박정희 정권과 정면에서 대립한 『사상계』가 ‘언론 게릴라전’을 주장했음에도, “그때 언론계의 상황은 게릴라 언론을 펼 정도로 의식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송건호, 2012, 280쪽).

김태진은 언론기본법의 ‘양벌규정’이 한국 언론이 구조적으로 권력에 예측·밀착되는 시초가 되었다고 탄식했다(김태진, 2012. 4. 13 녹취). 기자의 잘못으로 신문사의 대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조항은 신문제작에 대한 책임을 신문사 사장에게도 물을 수 있으므로 정부비판적 제작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송건호는 이 법은 언론사업과 그 활동의 자유를 신장시키기보다 언론자유를 제약하고 정부에 일방적으로 협조하도록 일방적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집 8, 39~43쪽). 송건호는 언론민주화를 위해 첫째 1975년과 1980년 두 번에 걸쳐 부당하게 해고된 9백여 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복직이 선결되어야 하며, 둘째 언론기업의 경제적·정치적 독립의 필요성 그리고 셋째 언론기본법의 폐기, 마지막으로 편집권의 독립을 꼽았다(전집 8, 43~47쪽).

3) 언론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언론 모델의 실험

언론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도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점을 송건호는 항상 강조했다.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면 독재는 절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독재자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정보를 독점하기 위해 언론의 독립을 파괴하고 언론자유 대신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언론의 민주화 문제는 언론과 외부, 즉 사회와의 관계이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 언론사에서는 언론사의 내부문제로도 크게 제기되었다. 언론 기업주와 제작에 종사하는 기자들 사이의 근본적인 대립이나 시비는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지만 문제는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도대체 위기란 무엇이나라는 상황평가가 서로 엇갈려 기업주와 기자 사이의 시비가 생겨난다. 임재경은 한국일보 논설위원 시절 박정희 정권의 압력을 받은 발행인과 겪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74년 4월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국일보』 발행인은 논설위원이었던 나를 불러 사표를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나에게 신문인으로서 정치에 관여했으니 사표를 받아야겠다고 말했지만, 중앙정부에서 당신의 사표를 받으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게 더 솔직한 이유였다. 나는 그런 이유라면 사표를 쓸 수 없으니 회사에서 면직을 하던지 파면을 시켜라는 식으로 맞섰다. 결국에는 발행인의 방에 있는 금고 속에 내 시말서를 써서 넣어두었다고 치자로 일단락이 될 수 있었다.”(임재경, 2012. 3. 30 녹취)

박정희 정권의 언론 통제는 언론사주에게로 그리고 언론사 경영인의 편집권 간섭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갔다. 신문사 논설위원들끼리 다른 언론사를 방문하던 무렵 임재경은 송건호 『동아일보』 편집국장인 『한국일보』를 찾아왔을 당시 나는 짧은 대화를 기억해 냈다. 송건호는 임재경의 민주회복국민선언 참여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큰 일을 했다고 진심으로 격려했다는 것이다(임재경, 2012. 3. 30 녹취).

언론자유 쟁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동아일보』는 노조를 결성하게 됐다. 성유보는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 분위기 속에서 저항해야 한다는 의식은 언론계에 팽배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동아일보』 기자들이 조직적으로 집단행동을 했던 것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성유보, 2012. 3. 24 녹취).

“당시 송건호 편집국장이 아니었다라면 우리의 투쟁은 좀 더 일찍 거칠어졌을 것이다.¹³⁾ (송 국장이 있었기에) 처음에는 1단씩 쓰고, 1단 기사들을 고바우 만화 밑에 한데 모아 편집기술을 활용해 2단 또는 3단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고, 1단씩 깨기라고 해서 기사 가치에 따라 3단, 어떤 건 1단, 결국 데모 사진도 실을 수 있게 됐다. 고문당한 학생들 인터뷰 기사가 전면으로 나간 적도 있었다. 『동아일보』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뻐던 날이었다.”(정연주, 2012. 4. 9 녹취)

10·24선언 후 경영진과 기자들간의 내부적 갈등은 점증될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12월말부터 표면화 된 무더기 광고해약 사태였다. 격려광고와 같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광고탄압의 장기화는 회사 경영진과 간부들 대 자유언론실천 의지를 불사르는 기자들과의 필연적인 갈등을 남겼다. 결국 사측은 장기화된 광고탄압을 기구 축소와 기자 해고로 해결하고자 했다. 농성을 주도한 기자들이 우선 해고 대상이 됐다. 제작거부한 주동자들을 회사는 해고했다. 송건호는 편집국 소속 기자 수십 명을 본인의 이름을 해임한다는 것은 “죽으면 죽었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양심상 도저히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있을 수가 없어 혼자서라도 사직하기로 했다¹⁴⁾(전집 9, 195쪽).

송건호는 이를 두고 신문의 독립성을 짓밟고 어용지가 될 것을 강요한 외부세력의 개입과 이를 반대하고 배격한 기자들과의 대결이었다고 보았다. 이것이 신문사 내의 싸움인 것 같은 양상을 보인 것은 권력과 유착한 경영진이 되레 겁을 집어먹고 권력을 대신해 기자들을 탄압한 데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기업이 독립성을 자진포기하고 권력과 야합해 기자들을 대거 해고한 것은 한국 언론사에 기록된 언론의 가장 비정상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신문이 진실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이야기건만, 진실보도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전적으로 보도활동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양심문제로 볼 수는 없다. 진실보도의 책임이 기자 쪽에 있다는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보도가 안 되는 이유를 전적으로 기자들의 윤리문제로 두는 것은 신문제작 현실을 모르쇠한 불충분한 견해이기 때문이다.

송건호는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태를 겪으면서 『신동아』에서 기획한 ‘한국언론의 현실과 제문제’ 특집편에서 “우리가 자유언론을 이야기할 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는 많이 주장해 왔지만 경제로부터 받는 제약은 언론인 자신도 비교적 등한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 (중략) 자유언론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야욕적인 대기업의 횡포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동아일보, 1975). 언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국민에게 혹은 정부에게 알려주는 것은

13) 1974년 11월 11일 서울 명동성당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천주교회에서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열린 것을 기자들은 최소한 사회면 머리기사로 다룰 것을 주장했고, 회사는 사회면 2단 중간기사로 내보내려던 것이 팽팽히 맞섰다. 송건호 편집국장은 해당 기사를 사회면 중간 톱으로 사진과 함께 보도하자는 제안으로 사건을 일단락시켰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데모나 성직자들의 기도회 관련 사진들이 1단 벽을 넘어 게재되기 시작했다.

14) 송건호는 일상적인 신문 제작에 대해서조차 외부의 기관원이 간섭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송건호는 사장과 주필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수습하면 먼 20년 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재고를 간청했으나 두 사람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으며 서글픈 당시를 밝혔다(전집 9, 197~198쪽).

언론의 일이며,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동아일보, 1975).

“자유언론실천선언이 나온 지 3년이 되었지만 제도언론은 그대로였다. 참다못해 <대화>라는 잡지에 ‘언론계 선배 동료들에게’라는 편지체 글을 신기로 했다. 당시 <대화>에 임정남 편집장과 함께 송건호 선생이 주필로 계셨다. 송건호 선생께 내 글을 전달했는데, 70년 언론을 잘 증언한 글이라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내 글이 실린 이유로 <대화>는 무기한 폐간(강제휴간조치)을 당했다.”(정연주, 2012. 4. 9 녹취)

정연주가 기고한 글에 대해 송건호는 강하게 동감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기고글은 “언론이라는 직업이 주는 윤리, 언론이 본래 고유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과 책임, 거기에 따른 윤리를 포기하는 엄청난 범죄를 정말 어찌 하려하느냐”고 질타하는 내용이었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이하 민언협)의 기관지 『말』은 새 언론 창간을 앞둔 실험이었다. 민언협은 여러 가지 실천 활동에 대한 구상을 했다. 새 시대의 언론개혁이라든지, 한국 언론의 재벌 독과점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새로운 언론의 구상 등이 그것이다. 또한 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연대를 하면서 활동하자는 뜻이 모아졌다.

“박정희 유신이 끝나면 우리(동아투위 때 해직된 언론인들)가 다시 복직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래서 제도언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했고, 현실의 제도언론을 비판하여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78년 10월 24일, 보도되지 않은 기사 목록을 폭로한 것이 그것이다.¹⁵⁾ 이 사건 후에 5·17이 났고, 그때부터 유신 독재 이후의 새 시대 새 언론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성유보, 2012. 3. 24 녹취)

1980년대 언론기업들은 국내 어느 재벌기업보다 높은 급료와 두둑한 부수입을 올렸다. 언론산업의 호황은 언론기업의 독점과 카르텔, 특히 광고시장에 있어서의 수요독점의 형태로 확실히 보장되고 있었다. 권력과 제도언론을 향한 통렬한 고발이었던 보도지침 사건은 송건호가 민언협 의장으로 있던 당시 『말』 특집호(1986년 9월 6일 발행)를 통해 보도됐다.¹⁶⁾ 언론인에게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국민들에게만 감추어진 비밀이었던 보도지침이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이 사건으로 김태홍, 신홍범, 김주연 기사가 연행됐다. 김태진은 동료들의 구속을 보며 제작을 중단하자는 내부 의견이 많았지만 말할 수 있는 미디어가 있어야 한다며 계속 발행을 주장했던 것도 송건호였다고 말했다(김태진, 2012. 4. 13 녹취).

당시 증인신문에 출석한 송건호는 민주국가에 있어 언론과 정치권력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언론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정한 보도를 해야

15) 제도언론이 외면한 민주회복운동과 인권에 관한 기사를 『동아투위소식』에 신기 시작했다. 언론자유 등을 요구하는 대학과 종교계, 재야 민주단체 등의 소식, 전남대 교수들의 ‘우리들의 교육지표’ 사건, 민주회복운동과 인권 관련 사건, 동일방직 노동자 취업방해 사건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10월 24일엔 77년 10월부터 78년 10월까지 발생한 민주회복운동과 인권관련 기사 125건을 <보도되지 않은 민주 인권사건 일지>로 정리, 발표했다. 투위는 78년 7월 12, 13일 이틀간 천관우 선생, 환완상 교수의 발제강연과 송건호의 종합강론 및 토론으로 이어진 자유언론 세미나를 열고 민주·민족언론으로써의 새 시대 새 언론을 준비하자는 목표를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5). 『자유언론: 1975~2005 동아투위 30년 발자취』, 해답술).

16) 전두환 정권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 명의로 각 언론사에 비밀통신문을 매일 보냈다. 뉴스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 일일이 ‘가’, ‘불가’, ‘절대불가’ 판정과 함께 기사의 크기, 내용, 형식까지 결정해 내려 보냈다.

하고, 이와 같은 공정한 보도에 의하여 얻어진 여론은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권력과 언론이 결탁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민주언론운동협의회, 1988, 169쪽)”고 답했다. 『말』의 발간 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송건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이상적인 신문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이상적인 신문을 만들자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다(민주언론운동협의회, 1988, 169쪽).

송건호는 신문에 20년, 30년 종사한 사람이라면 언론의 논리를 모를 리 없건만, 이 논리를 이탈하는 것은 기업이 놓여 있는 정치·경제적 여건이 이미 언론의 논리에 충실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신문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면 독자들의 외면은 더욱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송건호는 한국 언론이 당면한 문제는 언론의 독립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의 개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경영주의 손에 의해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에 송건호는 언론계 내부의 냉혹한 자기 비판의 필요성과 함께 노조의 결성, 신문사 사원이 주(株)를 나눠 갖는 것에 적극 동의했다. 송건호는 시민을 주주로 한 한겨레신문사의 대표로 떠올랐다.

“국민 모금으로 새로운 신문을 만들자는 계획이 나왔을 때, 새 신문, 새로운 신문을 만들려면 주체가 국민적인 상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인물로 송건호 선생이 아니면 안된다고 말했다. 송건호 선생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고 모금운동을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재경, 2012. 3. 30 녹취)

새 언론기관의 창설에 동아투위, 조선투위, 1980년 해직 세대가 함께 참여했다. 송건호는 당시 환갑을 전후한 나이로 각 계층의 존경을 받았고, 민주세력의 정신적 지주, 언론계의 대선배로 최고 지성의 표상이었다. 송건호는 해직기자 몇몇과 함께 전국을 다니며 『한겨레』 창간 기금 모금을 위한 강연회를 열었다. 새 신문의 구상은 송건호의 언론사상이 바탕이 됐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민중을 추구하고, 분단의 극복과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언론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하고,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새 신문을 만들 것입니다. 진실과 용기 그리고 긍지를 바탕으로 새 신문은 그 어떤 세력의 간섭도 용납지 않을 것이며,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 신문은 민주주의적 모든 가치들의 온전한 실현, 민중의 생존권 확보와 그 생활수준 향상, 분단의식의 극복과 민족통일의 지향을 주요 방향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 실천을 위하여 새 신문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대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광고주로부터의 독립을 확고히 할 제도적 장치 위에서 출범할 것입니다. (중략) 고답적 엘리트주의를 경계하여 가장 쉬운 표현을 쓸 것이며 독자의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새 신문 창간준비 사무국, 1987)

시민들에게 새 신문의 설립을 추진한 해직기자들의 면면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아일보』 편집국장직에서 물러난 송건호는 잘 알려져 있었다.¹⁷⁾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굳건했다. 기자들

17) 1965년 경향사태 때 송건호는 『경향신문』 편집국장이었고, 75년 동아사태에도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맡았다. 그가 편집국장 취임 때마다 해당 신문사는 언론탄압에 직면해 위기에 처했다. 송건호 역시 당시 신문에 닥칠 위기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편집국장 제의를 수락하고 그 자리에서 권력과 싸우기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 안기부의 『한겨레』에 대한 계속된 탄압에서도 송건호는 권력과 대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다. 신문사 사장으로서는 송건호는 신문 편집의 독립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견지했다.

여러 차례 관계 진출을 제안 받았던 송건호는 기사는 기자직을 천직으로 알아야지 정계나 관계로 진출하는 징검다리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거절했다. 송건호는 『동아일보』 퇴직 이후 출판과 강연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며 경제적 어려움을 절감했지만, 그의 올바른 언론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는 오히려 강고해졌고, 이러한 바탕에서 독립언론을 표방한 한겨레신문사의 기틀을 세우는데 기여했다.

5. 송건호 언론사상의 주요 내용

1) 민족언론

한국 언론의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과 『독립신문』부터 시작한 시대별 언론의 역할에 대한 송건호의 문제의식은 언론이 우리 민족의 독립과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민중들과 공유할 것을 강조하는 ‘민족언론’으로 응축되었다.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은 계몽적 성격이 강한 개화기 신문답게 생활 개혁과 교육을 중요하게 다뤘다. 그러나 3·1운동이 있는 직후에는 총독부의 심한 언론간섭으로 격렬한 항일정신을 담은 사설을 실어 민족의 주체성 회복에 큰 의미를 두었다. 1920년대에 창간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는 일제통치하의 제한된 언론자유 속에서도 조선어 수호와 같은 민족문화 지키기에 앞장서려 했다(전집 9, 281~326쪽). 송건호는 이처럼 민중을 위해 용기를 북돋아준 신문을 정론신문으로 소개하고, 이 당시 신문의 사설을 쓰는 논객을 ‘지사적 기풍의 소유자’로 높이 평가한다(전집 9, 305~306쪽). 일제강점기 전후로 민중이 주체로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송건호는 언론의 역할을 민족의 참된 자주성 회복에 두기 시작했다.

‘해방의 민족사적 인식’(전집 1, 213~240)에서 송건호는 민족주의자로서의 역사관 또는 언론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진보적 민족주의자이자 저널리스트로서 언론의 자유, 언론의 역사성, 언론의 실천성을 강조한다. ‘해방의 민족사적 인식(전집 1, 213~240쪽)’이나 ‘분단시대의 사회인식(전집 1, 171~180쪽)’에서 보듯이 분단 상황에 대한 송건호의 생각은 민족내부의 격화, 이로 인한 민족의 참된 자주성 회복의 불가,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의 한계로 이어진다. 민족언론의 제구실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와 체제가 다른 이질성보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보았다(전집 10, ‘분단하의 민족언론’, 105~111쪽). ‘한국민족주의의 이해(전집 1, 191~202쪽)’에서 송건호가 밝혔듯이 제3세계형 민족주의의 담당세력은 민중이며, 민중에게 사회과학적 의식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민족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¹⁸⁾

한국 언론의 사표로 인정을 받는다. 성유보는 민연협 의장직을 맡아달라고 찾아갔을 때에도 송건호는 고민 없이 수락했다고 회고했다(성유보, 2012. 3. 24 녹취).

18) ‘분단 하의 한국민족주의(전집 2, 151~206쪽)’에서 제3세계형 민족주의는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민주화운동은 통일운동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분단 상황에 있는 민족은 아직 민족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며, 한국민족주의를 말할 때 통일문제를 제외하고는 논의 자체가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족주의는 ‘통일’, ‘사회의 민주화’, ‘경제의 자립화’ 속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아무리 성장과 건설을 거듭하더라도 ‘민주화’와 ‘자립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엔 그 발전을 참된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전집 1, 201쪽).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로 민주정치체제를 갖출 것과 민족적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일을 끝는데 여기서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 언론자유이다. 언론자유란 권력의 부당한 탄압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언론이 자기 판단과 책임 하에 활동을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관계에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을 강조하는 자세를 언급한다.

일제식민통치 시기 어떠한 형태의 정치운동도 허용되지 않던 시기에 항일운동이란 언론활동을 통한 수단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독재정권이 내세우는 안보 혹은 냉전논리가 팽배한 시기에도 언론은 민족에게 다친 문제의 근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환경을 설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민족언론은 민족의 자주·자립을 주장하며 강한 민족적 긍지와 자존심에 불타 있어야 한다. 민족언론은 온갖 사대주의·의타심을 배격하고 우리 문제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당한 자부심에 불타 있어야 한다. 한미간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논평되어야 한다. 민족언론은 사회과학적 이론에 바탕이 되어야 한다. 사회과학이 바탕이 된 언론만이 민족의 현실을 옳게 인식할 수 있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한다.”(전집 8, ‘상식의 길’, 257쪽)

민족언론이 경계해야 할 것을 들자면 객관주의 언론이다. ‘상식의 길’에서 송건호는 주관을 배제하고 언론이 기능만 우선하는 경우 “언론은 필요에 따라 어떠한 사회세력에도 봉사할 수 있는 한낱 테크닉”으로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전집 8, 256쪽). 신생국의 언론일수록 고도의 사상성이 요청된다고 했는데 이 사상성이란 민족언론을 뜻하는 것이다.

송건호의 역사관과 민족주의가 오류가 없는 완벽한 것일 수는 없으나 민족언론은 언론이 우리 민족의 독립과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유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언론인들이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1977년 동아·조선투위 공동명의로 발표되었던 ‘민주·민족언론선언’에 대해 송건호는 양 투위의 언론인 의식이 단순한 자유의식에서 한 차원 의식화된 민주·민족언론의 신념을 굳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한다(전집 8, ‘1970년대 이후 한국언론의 수난’, 189쪽).¹⁹⁾ 언론투쟁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것뿐만이 아닌 민족 최대의 정치과제인 통일 문제와 경제발전과 맞바꾸지 않을 인간의 자유를 언급한 것에 의미를 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송건호의 정치에 관한 깊은 성찰은 지식인의 사회참여가 현상적 비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역사에 참된 기여를 하는 ‘본질적 참여’에 있어야 한다는 차원으로 이어졌다. 우리 언론인이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야 ‘미국적 사고방식’처럼 우리의 역사적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미국 문화의 홍수에

19) 동아·조선투위는 해마다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한 10월 24일에 모든 회원과 재야 각계 인사를 초빙해 광화문의 태화관에서 자추연을 가졌다. 1977년 12월 30일 그간 복역하고 있던 이부영, 성유보 기자의 출감 환영회가 열리고, 이날 동아·조선투위 공동명의로 ‘민주·민족언론 선언’이 발표됐다(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1993).

떠밀릴 수 있는 문화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전집 6, ‘민족지성의 회고와 전망’, 17~36쪽, 전집 10, ‘사상사적으로 본 민족언론’, 17~74쪽). 따라서 민족문화를 발굴, 연구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고, 대중적 관심과 학계를 잇는 고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역사의식을 가진 언론인을 강조했다.

신문기자는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지식인의 가장 대표 격에 속한다. 매일같이 사회문제를 보도하고 논평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지식인보다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있다. 환경과 사회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의 입장도 민족적이든 계층적이든 연령 혹은 계층적이든 많은 주장이 다를 수 있다. 언론인으로서 어떤 문제 혹은 주장에 대면하게 될 때 일관된 정치적 혹은 언론적 입장과 논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율이든 타율이든 간에 지식인들은 역사적으로 반민족적 이데올로기 양산에 협조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언론인의 역사의식 부재는 지식인으로서 견지해야 할 지성의 일관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풍토를 낳는다(전집 6, ‘민족지성의 회고와 전망’, 17~36쪽; 전집 6, ‘지성의 사회참여’, 171~183쪽).

송건호는 ‘전환시대의 민족지성(전집 6, 55~62쪽)’, ‘한국지식인론(전집 6, 113~169쪽)’을 통해 신생국의 지성으로 자립·자주를 지향하는 민족지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민족지성의 사명은 예측과 사대적 현실의 부조리를 합리화하려는 사이버지성과 대결하여 그들의 사이버성을 폭로하고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데 있다. 무엇보다 지식인의 지성은 자기 나라의 현실에 대해 투철한 현실감각을 가지고 올바른 문제의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해결책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민족이라는 입장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사의식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전집 6, ‘지식인의 자세’, 75~86쪽).

“역사의식이란 무엇이나? 그것은 비판의식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의식이다. 과거를 미래로 전환시키는 현재의식이다. 따라서 역사적 지성이란 인간의 역사적 존재를 해명하며 그것의 발전과 변화와 그 속에 포함된 법칙성 같은 것을 밝히는 지성이다. 역사적 지성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사변적이 아니라 실천적이다. 이러한 지성은 당연히 주체적 지성으로서 나타난다. 남의 나라의 지성·방법론을 기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입장에서 실천적 과제로서 비판적으로 섭취하는 이성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지식인은 ‘지금·이곳’의 역사적 특수성을 의식하는 속에서 세계의 지성을 보아야 한다. 이러한 주체적 자세에서만 세계적 시야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전집 6, ‘지식인의 자세’, 86쪽)

요컨대 송건호는 언론인이 역사의식을 가진 지성인으로서 외래 문화의 범람 속에서 민족적 주체성을 갖고, 민족의 발전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했고, 스스로 그러한 삶을 실천했다.

2) 민주언론

언론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생명이다. 민주주의가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의 기준이 되는 척도가 언론이다. 송건호는 정부-언론-국민이 한 배에 타고는 있으나 사공인 정부가 노를 잘못 저으면 배는 침몰하고 만다는 비유를 들어 사공-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서 배가 제대로 운항되도록 인도하

는 역할을 언론이 맡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사공을 올바르게 향해하도록 비판, 견제하여 탈선을 막는 직책을 가진다고 말했다(전집 8, 24~25쪽).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중심축은 언론이다. 언론의 민주화는 전반적인 민주화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언론의 민주화 문제는 신문과 외부, 즉 사회와의 관계이며 문제라는 특성을 띤다.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고 독재적 성향이 있는 나라에선 언론의 자유가 짓밟히고 신문이 소수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제작되기 쉬워진다. 권력이 부패한 사회에서는 각종 법규로 인해 보도·논평의 자유가 제약받기 쉽다. 한국 언론계의 1975년 광고과동 사건²⁰⁾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된 사회에서는 신문이 소수집단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을 위해 제작될 수 있도록 언론의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송건호(1987)는 『민주언론 민족언론』 ‘저널리즘과 휴머니즘(전집 8, 75~108쪽)’에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세 가지 측면의 언론민주화운동을 언급한 바 있다. 신문의 자주규제운동, 경영참가운동, 편집권참가운동이 그것이다. 자주규제라 함은 언론의 품위를 향상하기 위해 언론인 스스로의 자주적 규제에 노력하는 것으로 영국의 ‘신문평의회’를 대표적인 모델로 내세웠다. 신문제작방침이나 사시와 관련된 중요문제에도 언론인이 직접 발언권을 갖자고 주장했다. 경영참가의 예로는 『마이니치신문』을 들었다. 신문사의 사측과 조합은 원활한 교섭을 가지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르몽드』는 사원들의 편집권 참가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 신문사는 사원들의 투표로 신문사 사장을 뽑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언론의 자유를 언론의 내부문제에 해결하고자 한 점에서 공통된다.

일반적으로 언론자유를 국가권력과 언론주체로서의 신문기자 사이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미디어도 독점되는 경우에는 권력과 대중미디어 그리고 대중이라는 3극구조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송건호는 시민대중이 정보의 향유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매스 미디어에 전달하기 위한 액세스권을 제기하지만 더 나아가 민중의 반론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송건호가 반론권이야말로 한국언론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충분히 신장시켜야 할 여지가 많은 문제라고 주목한 이유이다.²¹⁾

송건호는 누구보다도 ‘독립된 언론인’의 자세를 강조했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족주의를 지향하며, 이 길을 위해 누구에게도 예속을 거부하는 독립된 언론인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전집 8, 68쪽).

1970년대의 ‘동참언론’, 1980년대의 ‘제도언론’이라 불렸듯이 권력의 정보 독점과 언론의 지배 방법은 변화될 뿐 반민주성과 반민중성은 변하지 않는다. 언론이 권력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단이므로 정권이 언론을 독점하거나 지배하게 되면 민주화와 정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원적

20) “1975년 한국언론계의 광고과동 사건은 기업주와 기자와의 대립도 아니고, 위계질서의 파괴행위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사회와 기자가 일체가 되어 외부의 압력에 대한 신문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 점에서 1975년 봄의 과동은 제2차대전 후 일본언론계에서 발생한 편집권시비나 서구에서 전래된 기자들의 경영참가운동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운동이었다.”(전집 8, 104~105쪽)

21) 송건호(1987)는 『민주언론 민족언론』에서 반론권이란 액세스권보다 더 적극성을 띤 미디어 참가권으로, 적극적인 반론권은 신문·잡지·방송 등에 의해 비판·비난 등의 공격을 받았을 때 공격을 받은 자가 자기의 반론을 문제의 기사나 방송과 같은 조건대로 가해(加害)미디어에 대해 무료로 게재하거나 방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했다(전집 8, 50~51쪽, 107쪽 참고).

이며 상대적인 민주주의적 가치관에서 어느 특정한 방법을 유일한 가치로 인정할 수 없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해야 하는데 주요한 이슈를 다루지 않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송건호는 언론이 민주사회의 유지를 위해 대화의 광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민주화가 필수 요건이라고 보았다.

3) 독립언론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나라가 아닌 이상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권력이 언론의 보도 내용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권력에 대한 감시는 입법부나 사법부도 하고 있지만 언론이 담당해야 할 몫이 가장 크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전집 9, 342~344쪽)에서 송건호는 언론자유보다 언론의 독립이라는 말로 고쳐 썼다. 언론의 자유라고 하기보다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말의 뜻은 어떤 문제에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또는 새로운 무슨 주장을 하든지간에 신문사 또는 방송국의 독립된 주장, 판단은 기자의 양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신문사 또는 방송국 밖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도 영향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신문이란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작용에도 변함없이 기자의 양식에 따라 제작되는 신문이다. 신문에 독립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신문에 독립을 부여하면 어떤 신문이 나올지 겁이 난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다. 신문이 정도에서 벗어나고 탈선을 하는 것은 언제나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와의 그릇된 관계에서 일어난다.”(전집 8, ‘상식의 길’, 247~259쪽)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중의 여론이다. 민중의 여론은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서 생기게 된다. 송건호는 자유언론과 권력의 대결이라는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형식이 한국언론에서는 자유언론과 언론기업의 대결이라는 형식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한탄했다. 언론기업이 언론자유를 신장시키려는 커녕 오히려 때려잡고 있다며 1974년 10·24선언은 저항언론의 선언이 아니라 독립언론의 선언이라고 단정했다(전집 8, 229쪽). 언론기업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것에서 기업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의 어제와 오늘’(전집 8, 117~125쪽)이나 ‘1970년대의 언론’(전집 8, 237~246쪽)에서 송건호는 언론기업의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외부적 요인을 열거했다. 언론기업의 재벌화 과정에서 이윤 추구 요인의 영향력 강화, 언론인에 대한 처우 개선 과정에서 금융, 조세 측면에서 정부에의 의존도 체고, 정관계의 언론인 대량 기용으로 인한 밀착 관계 형성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내부적 요인으로 언론인 스스로 탈사상적 기능인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언론인의 기개가 사라지는 현상 등을 우려했다.

언론의 자유는 기자와 편집인과 경영진이 단결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일선 언론인들만의 투쟁이 된 것을 안타까워했던 송건호는 “오늘의 언론계 위기는 그 위기의 소재가 단순히 외부만이 아닌 구조적으로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깊숙이 내재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전집 8, ‘신문과 진실’, 125쪽).

대안 미디어 『말』과 『한겨레』는 송건호의 독립언론에 대한 실험이자 실천의 산물이다. 『말』지

19호에서 송건호는 『한겨레』신문의 대표이사로 “『말』지 독자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는 참 언론을 탄생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언론독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기업 자체의 독립을 비롯해 신문 제작에 대한 신문인의 독립, 정권으로부터 신문인의 독립 등으로 이루어진다(전집 9, 341~349쪽). 언론인과 언론기업이 타락하는 경우 꼭필언론, 사이버 언론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는 민족과 사회에 중대한 위기와 불안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언론기업의 독립성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달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80년 4월 8일 신문의 날 기념행사 강연에서 송건호는 언론과 교육사업은 그 자체가 막중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 새 헌법에는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건호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구호는 잘못된 표현이며 다른 표어로 선정한다면 오히려 언론의 독립을 내세워야 옳을 것이다. 신문 기업주들은 기자들이 편집권 독립을 주장하면 ‘나는 바지저고리냐’는 식으로 발끈하는데 이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다. 언론이나 교육 사업은 그 자체가 막중한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기업이나 사유재산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김삼웅, 2011, 238쪽)면서 언론의 독립을 강조했다. 언론의 독립은 언론 민주화의 전제다. 언론의 독립성은 공공성에서 나오고 또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상호작용적 개념이다.

6. 결론

정부 권력의 언론 장악에 대한 시도가 직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사회 언론 민주화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탄압이 빈번한 상황에서도 많은 언론인들은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에 정면으로 맞서 보도통제에 대해 반대하고 국민을 위한 언론의 올바른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계속했다. 언론인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언론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실천한 결과 1990년대와 2000년대 기간 중에는 한국사회의 언론 민주화도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송건호는 특히 언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극심한 시기에 제도권의 언론 현장에서 물러났지만 기고와 집필을 통해 언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언론인이 가져야 할 신념과 태도 그리고 바람직한 언론사상을 실천했다. 그는 한국 언론계의 대부이자 새 언론 창간을 이끈 지도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언론 활동 개입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는 현실에서 언론인들이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살펴보고, 실천하는 것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요구되는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연구와 관련 언론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분석했다. 인터뷰는 언론인으로서, 송건호와 재야운동가로서, 그리고 언론민주화운동가로서 송건호가 활동한 내용이 각각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인터뷰 분석 결과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사회에서 정부의 언론 개입과 언론 활동의 제약은 민주주의 약화를 의미했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확대는 민주화의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송건호의 언론사상은 언론의 민주화 과정에서 형성됐고, 민족언론, 민주언론, 독립언론 등 세 가지로 요약됐다.

첫째, 민족언론은 분단된 남북관계와 주변 강대국의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언론인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언론은 민족의 자긍심을 세우고 통일을 강조하는 책무를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 민족언론은 한국의 문화를 계승하고 계고하는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민주언론은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이자 유지, 발전 양식이라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언론 보도가 시민의 민주주의 정치 참여를 위한 균형적인 시각과 건강한 판단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민주주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셋째 독립언론은 언론이 기업의 형태로 존재, 운영되는 과정에서 내외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때, 언론의 책무가 구현됨을 강조한다. 언론에 대한 개입은 밖으로는 권력과 기업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압력을,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경영진에 의한 사원들의 통제와 배제 시도 등으로 나타난다. 외부의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립적 구조와 더불어 내부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적인 형태가 독립언론의 요건이다. 언론기업이 제도적·재원적 차원에서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고, 정론을 추구하는 건강한 구조를 갖추어야만 언론의 편집권이 확보되고 언론자유가 비로소 가능하다.

끝으로 이 글에서 시도한 연구방법의 적용에 대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살펴보기 위해 1차적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했고 2차적으로 관련 언론인들의 구술을 토대로 당시의 주요 사건을 되돌아보는 방식을 시도했다. 일반적으로 사상 연구가 택하는 문헌연구는 연대기적으로 사상의 발전과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번 연구는 문헌연구와 주변인물의 구술 녹취 내용을 복합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인물 사상 연구 방법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연구 대상자 주변인의 녹취 분석에 근거한 연구 방법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입체적인 해석과 관점을 기초해 개인의 언론사상에 접근해 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녹취 내용이 ‘동아일보 광고사태’라는 특정 사건 중심으로 기술된 점에서 향후 연구는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녹취 대상자들의 진술과 증언 외에도 인터뷰 참가자의 문헌 기록을 분석하는 작업을 병행할 경우 녹취 내용과 저술 내용의 일관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연구는 더욱 광범위한 언론인을 대상으로 보다 엄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 결과의 보편성과 설득력을 높일 것이다.

Ⅱ 참고문헌

- 강만길 (2001. 12. 22). 송건호 선생 영전에 부쳐. 『한겨레』, 2.
- 김규환 (2012. 3. 31). 한국 언론자유 133개국 중 87위. 『서울신문』, 2.
- 김삼웅 (2011). 『송건호 평전: 시대가 투사로 만든 언론선비』. 서울: 책보세.
- 김용구 (1995). 『언론사상연구』. 서울: 나남.
- 남재희 (2010). 청암 송건호 (1927~2001). 대한언론인회 (편), 『한국언론인물사화』(190~198쪽). 서울: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5). 『자유언론: 1975~2005 동아투위 30년 발자취』. 서울: 해답술.
- 민족통합위한 호보를...카톨릭저널리스트클럽의 대화. (1971. 5. 19). 『동아일보』, 5.
- 민주언론운동협의회(편) (1988). 『보도지침』. 서울: 두레출판사.
- 새 신문 창간준비 사무국 (1987. 9. 23). 새 신문 창간을 발의함. 내부자료.
- 박용규 (2012). 송건호의 언론활동과 언론사상. 『한국언론정보학보』, 59호, 71~90.

- 서중석 (2001. 12. 24). 한국현대사와 송건호. 『한겨레』, 5.
- 성유보 (2001. 12. 22). 청암 선생을 회상하며. 『한겨레』, 5.
- 송건호 (1972. 8). 새남북관계의 전망. 『신동아』, 54~59.
- 송건호 (1985. 6. 15). 진정한 말의 회복을 위하여. 『말』, 1~2.
- 송건호 (1988. 5. 15). 창간사—국민 대변하는 참된 신문 다짐. 『한겨레』, 1.
- 송건호 (1988. 12. 17). 한국사회의 오늘과 내일: 한겨레 대강연회 중계—소외된 대중의 대변지 사명 다할 터. 『한겨레』, 5.
- 송건호 (2002). 『송건호 전집 1~20』. 서울: 한길사.
- 송건호 (2012). 박정희 정권하의 언론. 송건호·최민지·박지동·윤덕한·손석춘, 『한국언론 바로보기 100년 (개정2판)』(239~318쪽). 서울: 다섯수레.
- 신동아 3월호 ‘한국언론의 현실과 제문제’ 특집…자유언론은 민주의 거울. (1975. 2. 21). 『동아일보』, 5.
- 언론사 겸업금지 입법 절실. (1988. 11. 23). 『한겨레』, 1.
- 조맹기 (2006). 『한국언론인물사상사』. 서울: 나남.
-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1993). 『자유언론, 내릴 수 없는 것발: 조선투위 18년 자료집 1975~1993』. 서울: 두레출판사.
-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 국내학자 주제확정. (1970. 8. 14). 『경향신문』, 5.
- 한겨레 (2008). 『한겨레 20년사: 희망으로 가는 길』. 서울: 한겨레.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투고일자: 2012. 10. 2, 수정일자: 2012. 10. 25, 게재확정일자: 2012. 10. 28)

ABSTRACT

Journalist Song Kun-Ho's Ideas of Korean Journalism

Su-Jeong Kim* · Jin-Ro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journalist Song Kun-Ho's ideas of Korean Journalism. The journalist Song Kun-Ho was born in 1926 and passed away in 2001. He became a reporter in 1953 when he was a student at department of law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has worked for several media and resigned the executive editor at the Dong Ah Ilbo in 1975. At that time, while many reporters of the Dong Ah Ilbo struggled for the freedom of the press, he tried to protect reporters and independence of media. After his resignation of the executive editor, he wrote many columns and several books for Korean nationalism and the democracy of journalism. Instead of working for the authoritarian military regime, he chose a lonely and rough life as an intellectual journalist in action. Finally, he, as a president, established the Hankyoreh daily newspaper which was funded by tens of thousands citizens. He passed away in 2001. His ideas of Korean journalism are nationalism, democracy, and independency. These ideas are very important to restore democratic journalism which has been at risk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Keywords: Song Kun-Ho, Ideas of Journalism, Nationalism, Democracy, Independency

* Research Associate, Hankyoreh Media R&D Center

**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Broadcasting, Youngsan University